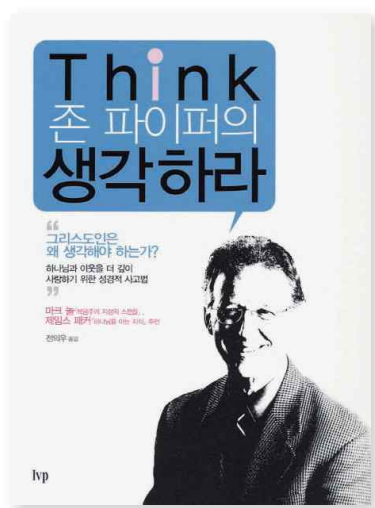


생각하라는 도전을 높이 사면서

이승구



존 파이퍼 저, 전의우 역, IVP, 2011

우리시대의 건전한 목회자들

우리 시대에 성경적으로 가장 건전한 주장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목회자들로 고든-콘웰에서 목회학 석사를 하고 웨스트민스터 D. Min. 출신으로 뉴욕 맨하탄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성장하며 맨하탄에서 가장 생동력 있는 교회로 이루고 있는 리디머 교회(Redeemer Church, PCA)의 팀 켈러(Timothy James Keller, 1950 -), 그리고 벤엘신학교에서 6년 동안(1974-1980) 신약학을 가르치기도 했던 개혁주의적 침례교 목사인 그래서 우리 시대의 스피셜이라고 할만한 미네아폴리스의 베들레헴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인 존 파이퍼(John Piper, 1946 -), 그리고 탈봇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를 하여 세대주의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 면에서 개혁파적인 강조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 1969년부터 캘리포니아 썬 벨리의 그레이스 교회(Grace Community Church)의 세 번째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존 맥아더(John F. MacArthur, 1939-)를 들 수 있을 것이다.² 이들이 같은 힘을 합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성경을 참으로 사랑하게 하며, 성경에 근거한 생각을 자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이 내는 책들은 많은 이들에게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어

1 Tony Carnes, "New York's New Hope," *Christianity Today* (1 December 2004) <http://www.ctlibrary.com/ct/2004/december/15,32.html>.

2 우리가 잘 아는 더글라스 맥아더는 5번째 조카이기도 한 존 맥아더는 그런 점에서 독특하다. 그는 아주 의식적으로 이런 입장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다음의 글을 보라: http://www.gty.org/resources/Sermons/90-334_Why-Every-Calvinist-Should-Be-a-Premillennialist-Part-1 따라서 그에게는 세대주의자라는 지칭과 칼빈주의자라는 지칭이 같이 붙어 다닌다. (Cf. http://en.wikipedia.org/wiki/John_F._MacArthur.) 이 둘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맥아더의 큰 과제이고, 그가 성공적으로 이를 수행하면 우리들은 많은 세대주의자들을 더 옳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굳건한 좋은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면 의미에서 이 분들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나아간다면 우리 시대의 교회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생각하라

특히 이번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 존 파이퍼의 최근 책 『생각하라』³는 매우 중요하고 우리들이 이 책의 조언을 깊이 생각하며 그에 따라야 할 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이 말하는 바는 파이퍼가 이 책을 헌정하고 있는 휘튼대학교 1968년 동기생들 두 사람(Mark Noll and Nathan Hatch) 중의 한 사람이고, 이 책의 추천 서문을 쓴 마크 놀(Mark Noll) 교수가 잘 표현하고 있듯이, 잠언 2장과 디모데후서 2장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들로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책이다. 그래서 책 제목이 아주 노골적이게 『생각하라』고 되어 있다. 파이퍼는 모든 정상적인 사람은 다 ‘학생 또는 학자’, 즉 ‘깊이 생각하며 공부하거나 연구하거나 살피는 모든 사람’이라고 본다(15). 그러므로 ‘이 책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는 진지하고 성실하며 겸손한 생각을 독려하는 것이다’(20).

이런 요청이 필요하고 이런 내용으로 책을 내는 것이 필요했던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생각하지 않고 믿으며 산다는 현상 때문이다. 마크 놀이 표현한대로 오늘날에는 보수적인 교회들에서도 “생각하지 말고 느낌에 따라 즉흥적으로 행동하라고 부추키는 면이 적지 않다”(11). 우리들 가운데 반지성주의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오스기니스가 표현한 바와 같이 많은 소위 “복음주의자들이 생각하지 않는다.”⁴ 또한 생각을 믿음과 대조시키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그런 “기도가 빠진 생각, 성령이 빠진 생각, 순종이 빠진 생각, 사랑이 빠진 생각은 교만해져 무너지고 만다(고전 8:1)”⁽²⁹⁾.

이런 잘못된 성향에 대항하여서 파이퍼는 성경적인 입장을 표현하는 바 (1) 최대한 분명하게 생각하되, (2)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생각하라고 한다. 파이퍼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한 방법이 진지한 사고라고 표현하기까지 한다(13). 생각하는 기능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분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수단들’ 가운데 하나이므로, 이 생각하는 기능을 그 본래적 의미로 제대로 사용하자는 것이다(16, 18). 다시 말해서, “하나님

3 John Piper, *Think: The Life of the Mind and the Love of God* (Wheaton, Illinois: Crossway Books, 2010), 전의우 옮김, 『존 파이퍼의 생각하라』 (서울: NP, 2011). 좋은 책을 빨리 번역해준 출판사와 역자에게 우리 모두 감사해야 할 것이다. 이하 이 책으로부터의 인용은 번역본에 근거하여 본문의 () 안에 면수만을 밝히는 식으로 하기로 한다.

4 Os Guinness, *Fit Bodies Fat Minds: Why Evangelicals Don't Think and What to do about It* (Grand Rapids: Baker, 1994).

5 파이퍼는 한 곳에서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도 정확한 지적을 한다: “진정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낳는다... 이웃을 향한 생각과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 사랑하기와 똑같지는 않다. 이웃을 향한 생각과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넘침 혹은 열매이다” (100).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참되게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이 넘쳐 난다” (181). 이와 비슷한 논의로 Seung-Goo Lee, *Kierkegaard on Becoming and Being a Christian* (Zoetermeer: Meinema, 2006), 2장을 보라.

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면 지성을 단단히 활용해야 하며, 이것을 뒷받침하는 성경적 기초는 깊고 튼튼하다”는 것이다(19). “하나님을 알려고 힘쓸 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사랑의 불은 꺼지고 만다(20, 194)”. 그러나 제대로 된 “생각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이르는 필수적인 길이다. 생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체로서 최종 목적이 될 수 없다(29)”. 생각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생각은 “하나님의 강한 손아래서 하는 생각, 기도에 젖은 생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각, 성경에 매인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선포할 더 많은 이유를 찾는 생각, 사랑으로 섬기는 생각”이다(29). 또는 “겸손하고, 성실하며,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꼼꼼한 생각”이다(142, 181). 이런 파이퍼의 의도를 이미 1911년에 워필드가 잘 표현한 바 있다: “열 시간 공부하기 보다는 십분 기도 하면 하나님을 더 참되게, 더 깊게, 더 실질적으로 알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대답이 제격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면서 열 시간 공부를 하면 어떨까요?”⁶ 이런 생각 때문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학교가 세워졌다” 또한 “한 지역의 기독교 역사가 길어질수록 교육 기관은 더 진지하고 더 철저해졌다(204)”.

그러므로 제대로 된 생각, 성령이 주신 지성을 사용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103)”, 그를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지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최고로 소중하게 여기려는 목적에서 그분을 알기 위해 자신의

사고력을 동원한다는 것이다(103)”. 그러므로 이런 생각은 파이퍼를 그렇게 이끈 것과 같이 “번번이 예배에로 이끈다(28)”, 또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과 같이 “묵상할 때에 불이 붙는 것이다(시편 39:3)(29)”.⁷

더 나아가 13장에서는 아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학문”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한다(195). 그에 의하면 모든 분야의 학문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한다(21, 197, 205)”. 그러므로 “만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으려는 영적 감정이 그리스도인의 학문에 스밀 때, 기독교 학문은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는다”고 파이퍼는 말한다(198).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느끼고 맛보는 영적 감각이 없으면, 즉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는 능력이 없으며 우리는 기독교 학문을 하지 못한다”고 말한다(199). 따라서 기독교 학문을 하려면 “반드시 거둬나야 한다(199)”. 그 역으로, “어느 분야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연구한다면 그것은 학문이 아니라 반란”이라고 파이퍼는 강하게 말한다(198).

또한 파이퍼는 그런 바른 생각은 전혀 지적인 교만을 드러내는 식으로 나아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왜냐하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이다(20, 181).⁸ “은혜가 역사하면 생각은 겸손한 지식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된다(20)”. 또한 파이퍼는 부지런히 연구하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가장 근본적인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파

6 Benjamin B. Warfield, “The Religious Life of Theological Students,” in *The Princeton Theology*, ed. Mark Noll (Grand Rapids: Baker, 1983), 263.

7 우리 말 개역에서는 “화가 발하니”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파이퍼 같은 이해는 청교도 Thomas Goodwin의 논의 속에 나타나고 있다: “생각과 감정은 상호 원인(sibi mutuo causae)이 된다. “[내가] 묵상할 때에 불이 붙으니”(시 39:3) 그러므로 생각하면 감정이 일어나고 타오른다. 감정이 타오르면 생각이 끊는다. 따라서 이제 막 하나님께 돌아 온 사람들, 새롭고 강렬한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생각할 줄 안다.”(*The Vanity of Thoughts*, *The Works of Thomas Goodwin*, 12 vols. (Eureka, Ca: Tanski Publications), 3: 526-27, Piper, 103에서 재인용).

8 ‘반면에 겸손한 신비주의자는 오만하다(20)’는 것도 파이퍼는 잘 대조하면서 지적한다.

이퍼는 “생각하라, 그러나 생각할 때 자기 자신에게 지나치게 감동하지는 말라”는 흥미로운 권면을 하고 있다(16). 그러므로 이 책은 한편으로는 일부 교계에서 성행하고 있는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를 극복하게 하는 책이며, 또 한편으로는 근대 이후에 유행하고 있는 상대주의적 관점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상대주의를 피하도록 하는 책이다. 파이퍼는 ‘상대주의가 지적으로 설득력이 없을뿐더러 도덕적으로도 바르지 않다’는 것을 잘 논의한다(19, 109-34). 또 한편으로는 이 책의 작성에 직접적 자극을 준 기독교 철학자인 니콜라스 월터스토르프(Nicholas Wolterstorff)가 지적한 ‘과도한 지성주의(over-intellectualism)’를 벗어나도록 하는 책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따라서 정상적으로 생각하며 산다면 이 책은 우리에게 주어질 필요가 없는 책이다.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마크 놀이 그리 생각하듯이 “세밀한 연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필수 과제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을 ... 대신 할 수 없다”는 데에 동의하기 때문이다(11). 파이퍼 자신도 이 책은 다른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주제로 쓴 여러 책들과 비교해서 더 뛰어나지 않으나 성경의 해석을 더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한다. 이미 오래 전인 1963년에 해리 블레마이어(Harry Blamires)가 “세속적 사유와 대조해서, 우리의 사회생활, 정치생활, 문화생활에 뚜렷하고 일관된 영향을 끼치며 제대로 역할을 하는 생

각한 기독교적 사유가 없다”고 안타까와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각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한⁹ 후에 1994년 이후로 많은 분들이 기독교적 지성에 대한 많은 논의를 하여 왔다.¹¹ 파이퍼의 이 책은 이런 논의에 성경적 토대를 더 분명히 하는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파이퍼가 생각하는 기능, 이성을 믿음과 대조시키지 않는 이런 성경적이며 기독교적인 입장을 더 분명히 드러내었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또한 우리의 지성이 ‘죄의 영향으로 왜곡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18, 79) 이상으로 더 강하게 논의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이런 점들을 좀더 일관성 있게 논의하였더라면 이 책은 이 문제에 대한 모든 논의에 성경적 토대를 분명히 한 최고의 책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날의 모든 잘 못된 생각들인 성경 비평과 천주교나 (바울에 대한) 새관점적 칭의 이해, 상대주의, 종교다원주의, 만인구원론과 영혼멸절설, 낙태 옹호와 페미니즘, 이혼과 동성애, 인종차별과 자민족 중심주의, 그리고 소비주의와 물질 중심주의, 심지어 알미니언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지금도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몇몇 격전지라고 밝히면서(236) 이에 대해서 정확히 성경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 파이퍼의 생각하기를¹² 따라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9 이는 Nicholas Wolterstorff, “Thinking with Your Hands,” *Books and Culture* (March/April 2009), 30에서 잘 비판되고 있다.

10 Harry Blamires, *The Christian Mind: How Should a Christian Think?* (London: SPCK, 1963), 6.

11 Mark A. Noll, *The Scandal of the Evangelical Mind* (Grand Rapids: Eerdmans, 1994); Guinness, *Fit Bodies Fat Minds* (1994); J. P. Moreland, *Love Your God With All Your Mind: The Role of Reason in the Life of the Soul* (Colorado Springs: NavPress, 1997); James W. Sire, *Habits of the Mind: Intellectual Life as a Christian Calling* (Downers Grove, IL: IVP, 2000); Clifford Williams, *The Life of the Mind: A Christian Perspectiv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Gene Edwards Veith, Jr., *Loving God With All Your Mind: Thinking as a Christian in the Postmodern World*, revised edition (Wheaton, IL: Crossway, 2003); Mark A. Noll, *Jesus Christ and the Life of the Mind* (Grand Rapids: Eerdmans, 2011).

12 이에 대해서 Piper, 236-39를 찬찬히 읽어 보라.